

발 부상 턴 류현진, 다음주 복귀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 “25일이나 26일 선발 등판 예정”
 “6인 선발로테이션 계속 운영하지는 않을 것”...시범대 전망



왼 발 부상을 털어낸 류현진(30·LA 다저스)의 복귀 일정 윤곽이 드러났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19일(한국시간)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의 경기를 앞두고 “류현진이 25일이나 26일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

기에 선발 등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이트삭스전에는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선발로 나섰다. 20일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는 미에

다 겐타가 선발 등판한다. 다저스는 21~2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경기에 브랜던 매카시, 알렉스 우드, 리치 힐, 커쇼를 차례로 등판시킬 계획이다.

로버츠 감독은 25일부터 시작되는 미네소타와의 3연전 중 25일 또는 26일 경기에 류현진을 투입 임시 6인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할 계획이다.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LA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회말 안드렐 톤 시몬스의 타구에 왼 발을 맞았다. 당시 발을 맞고도 투구를 이어간 류현진은 5%인닝 7피안타(1홈런) 2실점을 기록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이 계속되자 다저스는 지난 5일 류현진을 부상자명단(DL)에 등재했다. 부상자명단에 오르면서 전반기를 조금 일찍 마친 류현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지난 15일 시애틀에이전 투구를 실시, 58개의 공을 던지며 컨디션을 조율했다.

류현진은 전반기 동안 14경기 선발 13경기 등판해 72%이닝을 소화하면서 3승 6패 평균자책점 4.21을 기록했다.

선발로서 입지는 아직 불안한 상태다. 류현진의 부상 동안 마에다가 선발 한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다음주 초 복귀전이 류현진에게는 또 다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로버츠 감독은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 6인으로 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드래곤즈 공격수 폐체신 K리그 21라운드 MVP 선정

대구FC전서 3골 몰아쳐

전남 드래곤즈 공격수 폐체신이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폐체신은 지난 1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세 골을 몰아치며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3-3으로 맞선 후반 37분 김영욱의 도움 받아 결승골을 기록했다.

라운드 MVP는 득점, 슈팅, 패스, 볼 결합,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 등 주요 경기 행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 지수화한 K리그 지수와 연맹 경기평가회의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뤄

진다. 폐체신은 득점(3골), 패스 성공률(83%), 볼 결합 시도(33회) 등에서 총점 52.9점을 기록했다.

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폐체신과 조나탄(수원), 이강호(서울)가 뽑혔다. 미드필드진은 김인성(울산), 문창진(강원), 신형민, 로페즈(이상 전북)로 꾸려졌고 고승범(수원), 리차드(울산), 채프만(인천)이 수비진을 형성했다.

최고 골키퍼의 영예는 김용대(울산)에게 돌아갔다. K리그 챌린지 21라운드 MVP에는 부천 고명석이 이름을 올렸다. 뉴스스

유소년 야구 선수들 보호 대책 내년부터 시행

야구소프트볼협회, 투구수 제한·연속일 투구 금지

유소년 야구 선수들의 보호 대책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2017년도 야구, 소프트볼, 생활체육 등 각 분야별로 전반기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및 통합 협회 제반 규

정 제정 유소년야구 제도 개선(안), 국제대회 출전 관련 KBSA-KBO 업무분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구성된 '프로·아마 업무공조 TF'에서 논의하고 이후 두 차례의 지도자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마련한 유소년선수 보호 및 부상 방지 대책 중 ▲초·중·고 투구수 제한

▲연속일 투구 금지 ▲의무 휴식일 권고(안)에 대해 2018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동계훈련 기간 내 연습경기 금지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연내에 세부방안을 결정하고 각 팀들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기로 했으며, 2016년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전국중화야구대회 지명타자제를 2018년부터 폐지하고 고등부 금수(비목재) 배트 전환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TF에서 지속

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는 야구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각종 국제대회 중 올림픽, 아시안게임, 프리미어12의 경우 KBO 소속 지도자 및 선수들을 선발해 파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협회와 KBO가 업무를 분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관리(파견 주체 등)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계속 보유하며, KBO에서는 내부 국가대표운영규정에 의거, 대표팀을 선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스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19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캄덴 야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때려낸 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추신수, 1회 선두타자 홈런 포함 시즌 20번째 멀티히트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후반기 첫 홈런을 포함해 시즌 20번째 멀티히트를 때려냈다.

추신수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캄덴 야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홈런을 때려내는 등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날카롭게 들어갔다. 1회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딜런 번디를 상대한 추신수는 2구째 시속 90.7마일(약 146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통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시즌 13호 홈런.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44개로 늘었다. 후반기 첫 홈런이자 지난달 26일 뉴욕 양키스전 이후 17경기, 23일

만에 홈런이다. 2회 2사 만루의 찬스에서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도 안타를 때려냈다. 추신수는 팬들의 5구째 90.7마일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추신수는 후속타자 엘비스 앤드루스가 병살타를 쳐 더 이상 진루하지 못했다. 추신수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앞 땅볼로 돌아왔다. 이로써 시즌 20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4에서 0.248(307타수 76안타)로 올라갔다.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볼티모어의 김현수(29)는 8회초 대수비로 출전했다. 8회말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설 기회를 잡은 김현수는 상대 구원 토니 바넷의 초구 첫 패스트볼을 노려쳤지만, 2루수 정면으로 굴러가면서 병살타에 그쳤다.

감독들이 가장 원하는 외국인 투수 ‘헥터’...이유는?



감독들이 가장 원하는 외국인 투수, KIA 헥터 노에시(30)는 바로 그런 존재다. 헥터는 올 시즌 18경기에서 리그 최다 123%이닝을 던지며 14승 무패 평균자책점 3.13으로 활약 중이다. 18경기 중 15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QS)했고, 이 가운데 11경기가 7이닝 이상 던진 QS+였다. 2개 부문 모두 리그 압도적인 1위.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KIA와 헥터를 바라보는 상대팀 감독들의 부러움은 그 이상이다.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상당수 감독들이 KIA의 1위 질주 요인으로 헥터를 꼽으며 남다른 그의 능력에 주목했다. A감독은 “헥터는 꼭 삼진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맞아 잡아야 할 타이밍에는 타자가 투축 맞히도록 던진다. 제구가 되는 투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투스트라이크 이후 빠는 공 없이 타자가 쳐서 죽게 만든다. 보통 투수라면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삼진을 잡으려고 하는데 헥터는 그런 욕심이 없이 투구수를 적게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헥터는 올 시즌 94개의 삼진을 잡아 이 부문 3위에 올라있

지만 9이닝당 탈삼진은 6.84개로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22명 중에서 11위로 평균에 위치해 있다. 굳이 삼진을 잡지 않아도 효과적인 투구를 한다. 이닝당 투구수도 15.5개로 최소 5위. 덕분에 평균 6%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B감독은 “공이 아주 빠른 투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45km 이상 던지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가

좋다. 체인지업이 직구랑 같은 폼에서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 쉽다. 여기에 슬라이더가 들어오면 대처하기 어렵다. 작년 경험이 있어선지 직구보다 변화구를 더 많이 던지는데 그게 통하고 있다. 어느 팀에서든 이런 투수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할 것이다”고 부러워했다. 올 시즌 헥터의 구종 구사 비율을 보면 직구(45.2%)보다 체인지업(24.3%) 슬라이더(17.8%)에 커브(12.7%)까지 변화구 비중이 높

다. 헥터를 상대한 모 타치는 “강속구 투수이지만 변화구를 더 많이 던진다. 슬라이더가 정말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C감독은 헥터리는 존재감 자체에 주목했다. 이 감독은 “헥터가 나오면 7회까지 던져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점수도 2점밖에 주진 않으니 KIA 타자들로서 ‘우린 3점만 내도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팀 전체가 편해진다. 야구는 결국 선발투수가 잘해야 한다. 헥터 같은 선발투수가 있어 KIA가 더 강

상당수 감독들, KIA 1위 질주 요인 ‘헥터’ 꼽아
 “제구 되는 투수...삼진 잡지 않아도 효과적 투구”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기본적 145km 이상 던져”
 “7회까지 2실점...타자들, 3점 내면 이긴다 생각”